

7세기 두 제국의 충돌-동로마 제국과 사산 왕조 페르시아

로마와 페르시아의 전쟁은 3세기 초 로마 제국과 사산 왕조의 첫 충돌 이후로 로마 제국의 분열로 이어진 동로마 제국과 사산 왕조의 7세기까지의 크고 작은 전쟁을 일컫는다. 그중에 단연코 7세기 초의 일어난 로마-페르시아 전쟁은 이전까지의 국지전과 소모전의 형태가 아닌 두 제국의 명운을 건 총력전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우측의 암각화는 포로로 잡힌 발레리아누스 황제 앞의 사한샤 사푸르 1세를 새긴 것이다. 이는 260년 에데사 전투로 로마의 황제가 사산 왕조의 포로로 잡힌 전대비문의 사건을 묘사한 것으로 당대 두 제국의 충돌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사산 왕조는 근본적인 국력 차이로 인해 로마와 동로마 제국에 비해 긴 세월동안 열세적인 위치에 존재하였다.



7세기 초 동로마 제국에서 포카스가 반란을 일으켜 황제를 시해하고 제위를 차지하였다. 이에 당시 사산 왕조의 호스로 2세는 포카스의 악행을 바로 잡겠다는 명분으로 동로마 제국을 침공하였다.(603년) 당시 내전중이던 동로마 제국은 이러한 사산 왕조의 침공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로마-페르시아 국경 일대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동로마 제국의 이라클리우스가 포카스를 몰아내고 황제로 즉위하였지만 전황은 여전히 사산 왕조에게 크게 유리하였다. 613년 안티오크 전투로 그리스도교 5대 교구중 하나였던 안티오크가 사산 왕조에게 점령당하였으며 614년에는 예루살렘이 사산 왕조에 의해 함락되었다.



615년, 동로마 제국은 **사르디스 전투**에서 마저 참패하며 아나톨리아 내륙의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이어 619년경에는 제국의 핵심적 경제 기반이었던 이집트마저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동로마 제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전황이 극도로 불리해지자 이라클리오스 황제는 사산 왕조가 제시한 가혹하고 굴욕적인 평화 조건을 수용하여 일시적인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는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라클리오스 황제는 휴전 기간을 활용하여 군대를 재편성하는 한편, 행정 및 군사 조직을 정비하는 테마제도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병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여 군역을 세습하게 하는 **둔전병제**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라클리오스는 622년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떠나 직접 친정에 나섰다. 같은 해 **이소스 전투**에서 거둔 대승을 기점으로 아나톨리아 내의 페르시아 세력을 소탕하였으며, 메소포타미아 접경지까지 진격하였다. 이를 통해 동로마 제국은 빼앗겼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였고, 약 20여 년간 수세에서 벗어나 전쟁의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전황이 반전되자 호스로 2세는 불리한 전황을 극복하고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이에 **626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방전**이 발발하였다. 그러나 동로마 제국의 우월한 해군과 3중성벽에 의해 페르시아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이로 인해 사산 왕조는 이집트와 동지중해 일대에서 철수했고 동로마 제국은 전쟁 이전 모든 영토를 회복하였다. 이후 627년 **니네베 전투**에서 동로마군이 승리하자 사산 왕조는 내부 분열이 발발하였다. 이로 인해 호스로 2세가 암살되었고 새로운 샤로 즉위한 카바드 2세가 화친을 청하면서 25여년간 이어진 두 제국의 대전쟁은 동로마 제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두 대제국의 충돌로 인해 기존의 교역로 대신 다른 교역로가 부상하였고 이 과정에서 메카와 메디나가 발전하였다. 후에 **이슬람교**가 성립해 아라비아에서 세력을 확장하였다.

동로마 제국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국력을 지나치게 소비한 바람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이 팽창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고 훗날 **정통 칼리프 시대의 이슬람 세력에 의해 중동과 레반트, 이집트 일대를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 사산 왕조는 이 전쟁의 여파로 2년간 12명의 샤한샤가 즉위하고 폐위된 대혼란기, 사산 공위시대(630~632)가 전개되어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산 왕조 또한 이슬람 세력을 견제하지 못하였다. 결국 630년 아라비아 반도가 이슬람 세력에 의해 통일되었고, **651년 정통 칼리프 시대의 이슬람 세력에 의해 사산 왕조는 멸망하게 되었다.**

